

미국 콘텐츠 산업동향

CONTENTS INDUSTRY TREND OF USA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사무소



주간 심층이슈

『구글 글래스와 할리우드의 미래 전망』

◎ 작성취지

- 영화산업의 영향 범위에 포함되는 극장산업부터 영화제작 및 관련 어플리케이션에 구글 글래스와 같은 신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 우려 등을 두루 살펴보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함

◎ 작성순서

- 들어가기
- 구글 글래스란
- 구글 글래스에 대한 미디어의 반응 및 예측
- 구글 글래스와 영화산업
- 정리 및 시사점

1. 들어가기

▣ 리포트의 배경과 목적

- 2013년 4월, ‘글래스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을 통해 얼리 어답터 그룹으로 뽑힌 8,000명은 1,500 달러를 지불하고 구글 글래스의 초기 버전을 사용하게 됨
- 이와 더불어 구글은 구글 글래스 어플리케이션과 셋업 페이지를 공개했음
- 구글 글래스는 새로운 컨셉은 아니지만 기존의 제품들에 비해 초경량 크기로 디자인되었으며 구글이라는 브랜드 네임과 더불어 프로토타입 출시 전부터 미디어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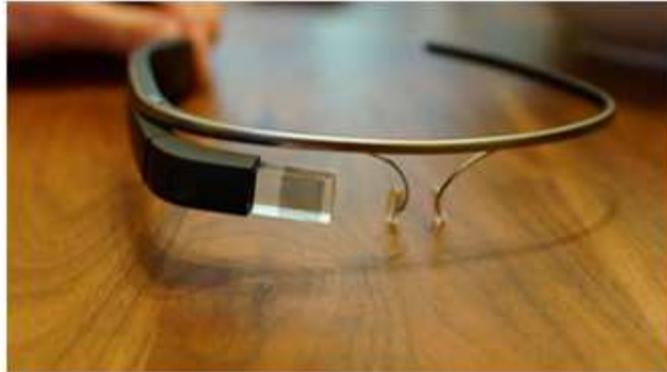
- 관련 미디어는 단순히 디지털 산업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산업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 보고서를 통해 구글 글래스의 대표적인 기능을 살펴보고 CNC 뉴스 및 Wired.com 등이 어떻게 구글 글래스를 평하고 구글 글래스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고자 함
- 또한 구글 글래스가 영화산업을 포함한 콘텐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함
- 극장산업부터 시작하여 영화제작과 관련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산업에서 신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가능성과 한계, 우려 등을 두루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출처: MacTrast.com]

2. 구글 글래스란?

- 구글 글래스는 착신용 컴퓨터의 일종으로 착용자의 머리에 장착 디스플레이(Head-Mounted Display) 형태를 기본으로 함



구글 글래스 익스플로러 에디션 [출처: wikipedia.org]

- 기존의 스마트 기기와 비교했을 때, 기기를 잡을 필요가 없어서 두 손이 자유롭다는 가장 차별적인 특징을 가진 스마트 기기임
- 구글 글래스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 기기로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을 적용했으며, 구글은 장비에 관련된 업데이트를 매달 제공하고 있음
- 장착된 하드웨어는 사진 촬영과 720 픽셀 HD 화질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와 오른쪽 안경다리에 장착된 터치패드, 모바일 장비와 연동할 수 있는 블루투스, 그리고 위치정보 수신이 가능한 GPS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메라는 사용자의 눈 위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를 방해하지 않음
- 모바일 장비와의 연동은 이메일과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줌
- 이용자의 음성인식을 이용한 자연어 검색엔진(키워드 나열에 의해 복잡한 검색식을 사용하여 검색하는 보통 검색엔진과는 달리, 평소에 쓰는 문장 그대로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는 검색기능) 기능을 갖추고 있음
- 이용자는 “Ok, Glass” 라고 말을 함으로써 구글 글래스의 음성인식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
- 음성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터치패드와 버튼을 이용해 스크롤을 내려 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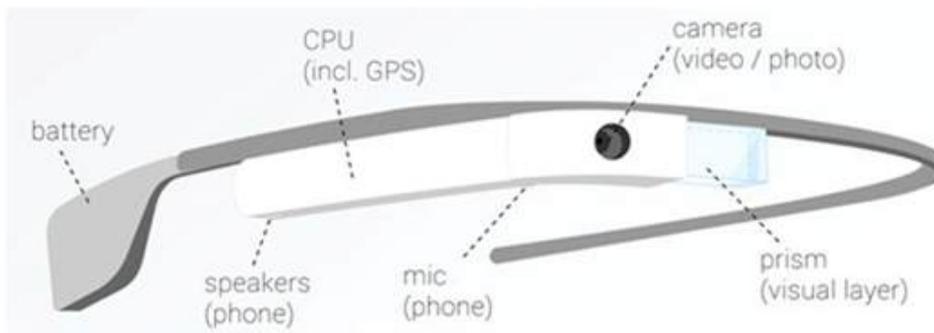
뉴를 사용할 수 있음

- 터치패드의 경우 이용자는 페이스북의 타임라인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조작할 수 있음
- 모듈방식으로 제작되었고, 필요에 따라서 선글라스를 장착할 수 있음
- 기존에 안경을 착용하는 사용자들이 안경 위에 겹쳐 쓸 수는 없지만, 모듈방식을 고수하는 한, 향후 출시되는 시제품부터는 안경에도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선글라스와 함께 장착한 예 [출처: endgadget.com]

구글 글래스의 구조



[출처: <http://www.brille-kaufen.org/>]

3. 구글 글래스에 대한 미디어의 반응 및 예측

- 구글 글래스가 테스트 그룹을 대상으로 예판된 뒤 미디어의 반응은 주로 냉소적이거나 회의적인 디스토피아적 전망이 주를 이루었음
- 이유는 그 동안 증강현실을 이용한 스마트 기기 이용자가 원치 않는 광고의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의 비난과 구글이 지금까지 수집해 온 이용자 정보가 그와 관련하여 이용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점 때문이었음
- 하지만 구글은 일찌감치 이와 관련하여 구글 글래스에 광고를 삽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힌 상태임
- 개인정보 침해 및 이용에 대한 관점 외에도 구글 글래스가 가진 고해상도 사진촬영 및 동영상 촬영 기능 때문에 공공장소나 사적인 이벤트에서 공공성 및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구글 글래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음
- <Time.com>은 기사를 통해 구글 글래스는 사생활과 보안 양쪽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또한 안경처럼 착용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최고 장점은 오히려 운전 중이거나 도보이용 중에 이용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어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음

■ 미디어별 전망 정리

○ “Big Industry Impacted by Google Glass” -- <WIRED.com>

- 구글은 지금까지 많은 분야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또 한 번 기존 산업에 위협을 가할 것임
- 이를 테면 Gmail이 이메일 서비스들을 상장시키고, 구글 검색이 전화번호부를 대체하고, Google Maps의 네비게이션 서비스

- 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과 같은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음
-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산업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분야는 구글이 소유하고 있는 유튜브이며, 그 중에서도 유튜브를 통한 교육용 채널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물론 이 경우는 두 사업이 모두 윈윈하는 상생효과를 말하는데, 이전에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기에 장비와 실제 교육 현장 사이의 거리를 안경으로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Mobile Learning, Distance Learning 등으로 설명되는 원격 교육과 온라인 교육에서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었음
- 또한 비행 산업에서 항공기 조종사들의 운행에 구글 글래스가 도움이 될 것임
- 수술 중인 의사들에게도 환자의 바이탈 사인이 보여지도록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
- 법집행자들이 구글 글래스를 착용하는 것은 이제 SF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 아님
- 실시간으로 관련정보를 받을 수 있고 따로 확인하기 위해 장비를 키고 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찰력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Google XXX: Porn Industry Planning To See Google Glasses Technology To Make Films” -- <Cncnews.com>

- 구글 글래스의 프로토타입이 출시된 이래 성인용 동영상 제작자들은 X등급의 영상물 제작에 구글 글래스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유는 촬영자의 시점과 가장 유사하고 생생한 시점샷(Point-of-View Shot)을 촬영할 수 있으며, 무겁거나 복잡한 장비 없이 고해상도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임
-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시제품이 출시된 후에 주 고객층이 얼마나 많이 구글 글래스에 관심을 보이느냐에 따라 산업의 동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음

- 또 구글 글래스가 성인물 제작시장에 현실 기반의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음
- 이미 미국 내 극장 및 스트립 클럽의 주인들과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및 공연장 등에서는 구글 글래스 착용자의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그들의 재산과 고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이같은 극장주 및 성인용 클럽 영업장의 반발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사이버 차별이라는 지적도 일어나고 있음
- 장비를 구매하고 착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인데, 이를 근거로 그 밖의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권리는 없다는 것임

○ “How Will Google Glass Change Filmmaking?” --

<Tribecafilm.com>

- 트라이베카 필름(TribecaFilm)은 다른 미디어와 다르게 구글 글래스의 출현을 영화제작과 영화상영이 하나로 수렴되는 현재와 시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최근 두드러지게 개발돼 온 POV 카메라 제작사인 ION, SONY(Action Cam), GoPro(Hero3) 등과 간단한 조작으로 현재 상황을 생생하게 녹화해 SNS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최근 경향을 들어 “누구나 감독이며, 누구나 관객”인 시대임을 역설했음
- 구글 글래스가 자극하게 될 영화제작의 측면은 “경험”임
- 관객들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생생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영화관을 찾고 시각과 이야기 캐릭터 등을 통해서 간접 경험함
- 구글 글래스는 이러한 경험에 대한 생생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다시 말하면 구글 글래스를 통해 독특한 관점인 1인칭 시점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창작 도구로써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것임

- 하지만 이러한 영화적 경험의 극대화라는 의견과 정반대되는 우려도 있음
- <Endrants.com>에서 발표한 “구글 글래스를 둘러싼 35가지 논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항목 17은, 구글 글래스가 영화관람의 경험을 축소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음
- 현재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영화관의 암흑 속에서 장비를 이용할 때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수준으로 공중도덕을 침해할 것이라고 예측했음

4. 구글 글래스와 영화산업

- 구글 글래스는 보는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된 스마트 기기로서 영화산업에 크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앞서 언급된 것처럼 극도의 1인칭 관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용 영상물과 성인물 등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음
- 또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영화촬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임
- 실제로 구글 글래스가 처음 소개되었던 자리에서 상영된 영상은 스카이 다이버가 구글 글래스를 착용하고 낙하하던 중에 촬영한 영상으로, 기존에 무거운 장비 혹은 머리카락에 장착하여 촬영했기 때문에 실제로 뛰어내리는 사람이 경험하는 시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던 영상물이 좀 더 생생하게 기록되고 전달될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은 촬영방식의 특성은 단순히 SNS를 통해 업로드 되고 공유되는 개인의 기록 뿐 아니라 다큐멘터리와 액션물 등에서도 새롭게 활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멀지 않은 미래에 구글 글래스를 이용해 촬영한 영화가 영화제 등을 통해 소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Hollywood Reporter>에 따르면 영화 및 TV 산업 관계자들은 구글 글래스를 새로운 콘텐츠 전달의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콘텐

츠를 바로 배급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로서는 영화관을 지날 때 상영정보를 보여주고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 예고편을 보여주거나 상영시간이 길지 않은 단편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등 제한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그리고 향후에는 1차적 콘텐츠와 2차적 시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상영정보를 보고 영화표를 구매하거나 예고편을 본 뒤에 영화 콘텐츠를 구매하는 등 경험과 정보가 거래로 이어지는 과정이 기존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음
- <Mashable>에 따르면 구글 글래스 착용자는 미국의 영화관 체인인 리갈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극장출입 절차에서 공식적으로 출입이 금지됨
- 눈을 깜빡이거나 음성 명령만으로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글 글래스의 콘텐츠 불법복제 가능성은 앞으로도 뜨거운 감자로 남을 전망이다

5. 정리와 시사점

- 구글 글래스의 가장 큰 특징은 두 손이 자유로운 스마트 기기라는 점과 지금까지 구현하기 힘들었던 극도의 1인칭 관점이 가능하다는 점임
- 이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해 영화산업은 구글 글래스에 대해 양분된 견해를 보이고 있음
- 한 가지는 독특한 관점을 새로운 방식의 영화 제작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며, 이와 더불어 새로운 방식으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의 기능을 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음
- 또 한 가지는 구글 글래스의 시판과 함께 대두되었던 콘텐츠 불법복제에 대한 우려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 등 부정적 전망이 있음
- 영화 관계자들은 단순한 눈 깜빡임이나 음성인식만으로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점, 장비가 가볍고 작아서 극장에 가지고 들어가기

쉽다는 점, 고해상도의 동영상 촬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우려를 표했으며 일부 극장에서는 구글 글래스의 착용을 금지하기도 했음

- 하지만 이 같은 양분된 반응과는 다르게 필자는 구글 글래스의 출현으로 인해 영화제작 방식은 물론 영화의 소비방식까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최근 제작되었던 저예산의 영화를 보면 초경량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 기존의 필름, IMAX와 3D 영화가 구현해 내지 못하는 영상을 만들어 냈음
- 비록 관점이 주를 이루고, 영상의 해상도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촬영된 영상과 비교해 좋지 못하다는 특성 때문에 파운드 푸티지(Found Footage: 어떤 영상이 발견되었다는 설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영화) 장르에 주로 사용되기는 했음
- 하지만 구글 글래스가 지원하는 고해상도라면 기존에 디지털 장비로 촬영하는 영화가 가졌던 장벽을 허무는 것은 물론이고, 전통적 방식으로 촬영된 영상물이 가지지 못한 자유로움까지도 영상물에 담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